

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의 관계 :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rtist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life satisfaction : the of public support at the center

김초하¹, 문상정^{2*}

Cho-Ha Kim¹, Sang-Jeong Moon^{2*}

요 약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2022년 3월~5월 사이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포하여 178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단순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이 사용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공공지원의 하위요인 중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공공지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부(-)적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는 최초의 연구로서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공연예술인,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 공공지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study intends to whether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from public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a sense of

1 Department Art & Cultural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llkimchohall@naver.com

2 Division of Liberal Arts, Gimcheon University, Gimcheon,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sjmoon@gimcheon.ac.kr (Corresponding author)

* 이 논문은 2022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2070).

Received(October 20, 2023), Review Result(1st: November 7, 2023), Accepted(February 9, 2024), Published(February 29, 2024)



© 2024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community.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through May 2022 with performing artists as the target audience, and 178 of the 220 questionnaires that were sent out were used as analysis data. Sim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hypotheses. After analyzing the data, first, it was found that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s of COVID-19 restriction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ir sense of community. Second, it appeared that performing artists' senses of community were significantly predictive of their life satisfaction. Third, when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upport on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their sense of community, it was found that among the components of public support, the effects of informational and material support were not significant, but the effects of emotional and evaluative support were. Lastly, when testing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changes depending on the amount of public support, it appear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were not significant. However, it was found that groups with strong public support had lower negative (-) relationships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than groups with weak public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several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urthermore, as the first study ident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upport on artist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it can be expected to add a theoretical extension to the field of arts studies.

Keyword : performing artist,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Life satisfaction, Public Support

1. 서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연예술은 ‘예술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 상연, 가창(歌唱)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예술’로 정의 된다. 나아가 공연예술은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정서적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의식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연예술은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기술자가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여 각기 다른 요소와 행위를 종합해야하는 분야로 [1], 무대 위에서 관객과 대면하는 출연진 외에도 무대제작에 필요한 조명, 음향, 영상, 특수효과나 의상, 분장 등과 같은 스텝들을 비롯해 연출가, 안무가 등 여러 분야가 협동해야하는 종합예술이다 [2][3].

최근 김초하 [4]의 연구에서는 예술인들이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하고, 공연예술분야의 공동체의식은 예술 환경과 생활여건이 좋고 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초하 [5]의 연구에서 공공지원과 긍정심리자본,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지원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예술인의 주관적 웰빙과 예술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은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연예술인들의 공동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는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문제 3)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공공지원이 코로나제약으로 인한 공동체의식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공공지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1.1 코로나제약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코로나제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과 위협 그리고 염려 등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고동우 [6]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초하·문상정 [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초하·문상정 [7]의 연구에서 측정한 바 있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여부와 개인적인 삶의 위협, 팬데믹 이전 일상과 현재 변화에 대한 지각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1.2 공공지원

본 연구에서의 공공지원은 박지원 [8]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김초하 [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초하 [5]의 연구에서는 공공지원이 예술인이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총 22문항을 설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1.3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McMillan & Chavis [9]의 연구에서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McMillan & Chavis [9], Peterson & Speer & McMillan [10], 김경준 [11], 박가나 [12], 장수지 & 김수영 & Kobayasi [13]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6]가 수정·보완하고 김초하 [4]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1.4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하였으며,

Diener & Emmons & Larsen Griffin [14]이 개발하고 조명한·차경호 [15]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이정순 [16]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였다. 총 5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을 연구하고,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상관관계가 공공지원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예술분야 종사자 중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20부를 배포하여 1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실증분석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7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26	14.6	학력	중졸	1	0.6
	30대	69	38.8		고졸	17	9.6
	40대	44	24.7		대졸	85	47.8
	50대	23	12.9		대학원재학	9	5.1
	60대이상	16	9.0		대학원 졸업	66	36.9
전공분야	음악	30	16.9	활동경력	2년미만	6	3.4
	전통예술	33	18.5		2-3년	5	2.8
	연극	57	32.1		4-5년	11	6.2
	무용	58	32.5		6-7년	16	9.0
					8-9년	13	7.3
					10년이상	127	71.3

연간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25	14.0	거주 지역	서울	77	43.3
	500만원미만	44	24.7		인천/경기	54	30.3
	1천만원미만	38	21.3		대전/충청	12	6.7
	2천만원미만	30	16.9		광주/전라	9	5.1
	3천만원미만	19	10.7		대구	3	1.7
	4천만원미만	13	7.3		경남	5	2.8
	5천만원미만	2	1.1		강원	1	0.5
	5천만원이상	7	3.9		제주	17	9.6
성별	남자	82	46.1	협회 가입 여부	가입	120	67.4
	여자	96	53.9		미가입	49	27.5
					기타	9	5.1

3.2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3.2.1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삶의 만족 측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변수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가정했던 차원들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기 3개 요인으로 가정하여 구성한 16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개 문항의 구조적 분할이 모호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삶의 만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코로나제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14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각각 .853(삶의 만족), .841(공동체의식), .855(코로나제약)로 내적 합치도는 모두 .84이상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었다.

[표 2]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삶의 만족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Table 2]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s of COVID-19 restrictions,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문항	요인 적재치	공통성	고유근	분산(%)	Alpha(α)
F1. 삶의 만족					
1.대체적으로 나는 내가 바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	.829	.728	3.373	24.090	.853
2.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866	.775			
3.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794	.647			
4.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795	.723			
5.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627	.435			

F2. 공동체의식					
1.나는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581	.571	3.360	23.997	.841
2.내가 노력하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88	.543			
3.우리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82	.626			
4.이 사회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59	.686			
5.우리사회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	-			
6.나는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	-			
7.우리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807	.679			
8.우리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800	.688			
F3. 코로나제약					
1.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귀하는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나요?	.854	.730	2.587	18.478	.855
2.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위험’에 대하여 요즘 귀하는 얼마나 염려하고 계신가요?	.827	.695			
3.코로나 19 발생이후 지금까지, 귀하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883	.793			

주1. 주성분분석, varimax rotated, factor loading .40미만 생략함

주2. 총누적 설명량: 66.565

3.2.2 공공지원 측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공지원을 측정하는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4개 요인으로 가정하여 구성한 22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 문항의 구조적 분할이 모호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공공지원에 대한 17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각각 .930(정서적지지), .931(정보적지지), .866(평가적지지), .694(물질적지지)로 물질적지지의 내적 합치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공공지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Table 3]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 of public support

문항	요인 적재치	공통성	고유근	분산(%)	Alpha(α)
F1. 정서적지지					
1.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796	.737	4.287	25.220	.930

2.문화예술 지원기관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769	.720			
3.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예술인)의 고충을 잘 이해해 준다	.816	.833			
4.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지원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하다	.649	.740			
5.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준다	.705	.751			
6.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예술활동을 하면서 마주하는 위기 상황에 의지가 된다	.772	.762			
F2. 정보적지지					
1.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 문제를 이해해 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	-	-	4.036	23.739	.931
2.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795	.827			
3.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	.764	.757			
4.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해 준다	.849	.836			
5.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766	.827			
6.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다	.738	.764			
F3. 평가적지지			3.087	18.160	.866
1.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의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해준다	.782	.806			
2.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의 예술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준다	.878	.821			
3.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700	.704			
4.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의 예술활동 성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			
5.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나를 예술인으로서 존중해 준다	.783	.677			
6.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	-			
F4. 물질적지지			1.694	9.967	.694
1.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지원 금액은 적절하다	.810	.764			
2.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직접지원(창작활동 지원 등)이 불가능할 때에는 간접지원(창작환경, 기반마련, 정책및 평가, 연구 등)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	-			
3.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무슨 일이건 나에게 대가를	-	-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4.문화예술 지원기관은 내가 필요한 지원이(재정, 금융, 인력, 기타 등)있으면 언제라도 지원해준다	.711	.779		

주1. 주성분분석, varimax rotated, factor loading .40미만 생략함
주2. 총누적 설명량: 77.086

3.2 공동체의식에 대한 코로나제약의 영향력 분석

공연예술이 지각하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코로나제약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enter)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연구문제 1). [표 4]를 보면, 회귀모형에 대하여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Durbin-Watson통계량은 1.504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회귀분석결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코로나제약의 변인은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동체의식에 대한 코로나제약의 단순회귀분석(enter, n=178)

[Table 4]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enter, n=178)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B	β		
(상수)	4.316		20.898	.000
코로나제약	-.192	-.263	-3.612	.000

R²=.169 Adjusted R²=.164 df(1,176) F=13.044 p=.000 Durbin-Watson = 1.504

3.3 삶의 만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영향력 분석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enter)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연구문제 2). [표 5]를 보면, 회귀모형에 대하여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Durbin-Watson통계량은 1.652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회귀분석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변인은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삶의 만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단순회귀분석(enter, n=178)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enter, n=178)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B	β		
(상수)	1.257		3.978	.000
공동체의식	.558	.435	6.406	.000

R²=.189 Adjusted R²=.184 df(1,176) F=41.042 p=.000 Durbin-Watson = 1.652

3.4 공공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은 [표 6]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연구문제 3). 세부내용별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정서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력($R^2=.169$)이 있으며, 2단계에서 정서적지지를 추가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설명력 변화($R^2=.255$)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회귀분석 한 결과 설명력 변화($R^2=.017$)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정서적지지는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정보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보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물질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질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력($R^2=.169$)이 있으며, 2단계에서 평가적지지를 추가한 회귀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설명력 변화($R^2=.097$)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회귀분석 한 결과 설명력 변화($R^2=.017$)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평가적지지는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공동체의식에 대한 코로나제약과 공공지원의 상호작용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public support on sense of community

Model	예언변수	B	β	R ²	ΔR^2	F 변화량	Sig. F 변화량
1	코로나제약	-.192	-.263***	.169 .424 .441	- .255 .017	13.044*** 107.784*** 5.144*	.025
2	코로나제약	.052	.071				
	정서적지지	.596	.683***				
3	코로나제약*정서적지지	.155	.740*				
1	코로나제약	-.192	-.263***	.169 .318 .327	- .149 .009	13.044*** 63.928*** 2.334	.128
2	코로나제약	-.087	-.119				
	정보적지지	.451	.519***				
3	코로나제약*정보적지지	.108	.579				
1	코로나제약	-.192	-.263***	.169 .187 .194	- .018 .006	13.044*** 25.519*** 1.390	.240
2	코로나제약	-.094	-.129				
	물질적지지	.306	.369***				
3	코로나제약*물질적지지	.089	.453				

1	코로나제약	-.192	-.263***				
2	코로나제약	-.006	-.008	.169	-	13.044***	.046
	평가적지지	.492	.512***	.266	.097	47.109***	
3	코로나제약*평가적지지	.152	.688*	.283	.017	4.050*	

주1. :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단계에 요약함

주2 : *: p<.05, *** : p<.001

3.5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공공지원의 4개 하위요인에 대하여 군집분석(K-MEAN 방식)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후에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가 공공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연구문제 4)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단순상관계수를 표준화상관계수로 변환한 뒤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결과 [표 7]에서 보면,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공공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공연예술인일수록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지원의 4가지 차원을 높게 지각한 공연예술인은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표 7]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

[Table 7] Differenc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종속 변수	집단구분	독립변수 코로나제약	종속 변수	집단구분	독립변수 코로나제약
공동체 의식	정서적지지 상(n=89)	.019 (.019)	공동체 의식	정보적지지 상(n=89)	-.072 (-.072)
	정서적지지 하(n=89)	-.090 (-.090)		정보적지지 하(n=89)	-.159 (-.160)
	Zr 차이검증값	1.871n.s		Zr 차이검증값	.588n.s
공동체 의식	물질적지지 상(n=87)	-.075 (-.075)	공동체 의식	평가적지지 상(n=89)	-.064 (-.064)
	물질적지지 하(n=91)	-.213* (-.216)		평가적지지 하(n=89)	-.147 (-.148)
	Zr 차이검증값	.925n.s		Zr 차이검증값	.561n.s

주1 : ** : P<.01, n.s는 non significant, 상관계수를 표준화상관계수(꺾호속)로 변환 뒤 차이검증(Zr-test)

주2 : 정서적지지·정보적지지·평가적지지 표준오차(Szr1-zr2) = .1496

주3 : 물질적지지 표준오차(Szr1-zr2) = .1523

4. 결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삶의 만족을 연구하는데 있

으며, 나아가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탐험적인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상관관계가 공공지원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Statistics 20.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표 4], [표 5], [표 6], [표 7]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1)의 경우,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회귀분석결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코로나제약($\beta = -.263$, $p < .001$)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연구문제 2)의 경우,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예언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연구문제 3)의 경우,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코로나제약과 공공지원이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제약과 정서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은 공동체의식($\beta = .740$)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두번째, 코로나제약과 정보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은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코로나제약과 물질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은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제약과 평가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은 공동체의식($\beta = .688$)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연구문제 4)의 경우,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공공지원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공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부(-)적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연구이다. 둘째, 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는 최초의 연구로써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3)에서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가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에서 코로나제약을 완충시켜주는 긍정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는 공동체의식을 감소시켜주는 코로나제약을 조절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제약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공공지원을 경험한 논리적 근거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가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측정척도가 지닌 타당도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 적용한 모든 변수에 대하여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단일 설문지를 이용해 자기기입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내재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공지원 측정척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험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References

- [1] J. H. Yang, Production of a performances, Seoul: KyoboBookstore, 2015.
- [2] E. H. kim,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Korean Performing Arts", Master's Thesis, Dept. of broadcasting Mass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99.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7607153>.
- [3] B. R. Kwon, "Study on the Flexibility of Public Space for Holding Cultural Performances", Master's Thesis, Major in Environment Design Dept. of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9.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730375>.
- [4] C.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ublic Support for performing ar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ntion to Adhere to Art Activiti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 9, no. 4, December 2022, pp. 397-409, doi: 10.29056/jdaem.2022.12.06.
- [5] C. H. Kim,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nd Culture :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adherence to art activiti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767568>.
- [6] D. W. Ko, "What Makes People Overcome COVID-19 Pandemic?: Vulnerable or tolerabl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21, no. 3, August 2020, pp. 399-424, doi: 10.21074/kjcap.2020.21.3.399.
- [7] C. H. Kim, S. J. Moon, "A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12, no. 3, June 2023, pp. 353-363, doi: 10.29056/jncist.2023.06.08.
- [8]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985.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791002>.
- [9] D. W. M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1, January 1986, pp. 6-23, doi: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

40103>3.0.CO;2-I.

- [10] N. A. Peterson, P. W. Speer, D. W. McMillan,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6, no. 1, December 2008, pp. 61-73, doi: 10.1002/jcop.20217.
- [11] K. J. Kim,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Major in Rural Social Eng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4462284>.
- [12]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565026>.
- [13] S. J. Chang, S. Y. Kim, E. Kobayashi,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8, no. 2, May 2014, pp. 1-24, doi: 10.21193/kjspp.2014.28.2.001.
- [14]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June 1985, pp. 71-75, doi: 10.1207/s15327752jpa4901_13.
- [15] M. H. Cho, K. H. Cha, *Cross-Country Comparison on Quality of Life*, Seoul: Jipmundang, 1998.
- [16] J. S. Lee, "Influences that tourism activity may have on tourism/leisure satisfaction and sense of well-being",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Daeg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4.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0114933>.